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전



광주박물관이 10월 24일까지 개최하는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전은 발굴 30년만에 한 자리에서 유물을 공개하는 의미있는 전시다.

1500년 전 죽은 이가 남긴 흔적들

10월 24일까지 유물 발굴 30주년 기념 특별전

금동관·굽다리 접시·연리문 유리구슬·쇠화살촉 등 전시

죽은 이의 시신을 매장한 곳을 무덤이라 한다. 무덤은 인간의 본성이 잘 드러난 공간 가운데 하나다. 당시의 생활상이나 의례, 사후세계에 대한 의식이 명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죽음을 마추는 인간이 남긴 흔적은 당대의 삶의 이야기가 녹아있을 뿐 아니라, 죽은 이가 누렸던 문화와 풍습 등을 담고 있다. 죽은 이는 곧 살아있는 이들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이유다.

노형신 학예연구사는 피장자의 실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피장자의 정체에 대해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주변과 활발하게 교류를 했을 뿐 아니라 인접 지역의 문화와 유물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치아 상태를 분석한 결과 20~30대 건장한 청년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함평 신덕고분- 쇠갑옷(비늘갑옷)

전시는 총 5부로 구성했다. 1부 '너른 들만 위, 독특한 무덤'은 처음 발견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무덤에 대한 의문에 초점을 맞췄다. 항공촬영 영상을 이용해 무덤의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며, 공간적 위치를 다룬다.

2부 '뚝뚝의 발견, 드러난 실체'는 당시 조사 과정을 조명한다. 도굴 사건을 다룬 언론의 반응과 조사 당시 사진 자료에서 긴박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죽음과 기억에 대한 사유, 무덤 속 유물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3부 '죽음과 삶, 기억의 공간', 4부 '무덤 속 비밀의 실마리'가 그것. 전시는 죽은 이를 묻는 과정에서 치른 의례 행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후자는 무덤 돌방에서 발견한 부장품 800여 점을 통해 무덤 주인의 삶을 조명한다.

특히 장고분은 호남지역에만 총 14기가 있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삼국시대 무덤과는 다른 모양과 성격을 띤다. 오히려 그 모양이 일본 고분 시대 주요 무덤인 정방후원분과 비슷해 주목을 받았다. 이런 모양의 무덤이 조사된 적이 없어 그 정체가 의문으로 남아 있었을 뿐이다.

다행히 1991년 3월 도굴된 신덕고분을 발견한 광주박물관은 무덤 내부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실시해 매장시설이 돌방(石室)이라는 사실과 다양한 유물을 확인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에광위에 작 '중경-중경'

한·중 예술교류전 '기억과 유대'

20일~8월20일 은암미술관

중국 항일정신의 의지가 집결된 중국 충칭(重慶)은 대한민국의 항일정신과도 맥을 같이하는 도시로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다. 백범 김구 선생과 애국지사들이 해방직전까지 체류하며 항일의지를 불태웠다.

광주와 충칭의 작가들이 교류를 통해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기획전이 열린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20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한·중 예술교류전 '기억과 유대(記憶與紐帶)'를 개최한다.

(사)동아시아미술교류협회, 중국 베이베이구미술관, 충칭진구문화전파유한회사법인이 함께 기획

한 이번 전시는 치열했던 항일시기라는 과거 상황 속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고 변화무쌍한 현재의 모습을 작품에 반영, 시대상을 예술로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와 충칭, 두 도시 간 예술 교류의 물꼬를 트는 전시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은 충칭 서남대학교 교수진과 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작가들이다. 2022년에는 광주 작가들이 중국 현지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천강·천사오진·광징웨이·푸지홍 등 32명의 참여 작가들은 정통 수묵화 등 자신의 고유한 표현 방식으로 재해석한 평면회화, 조소, 영상매체 등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충칭의 항일정신과 현재의 도시 이미지 등을 선보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여름밤 시원한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 공연

22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광주시 서구는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 (사진)을 초청해 제664회 목요열린국악한마당 '감탄연희' 공연을 개최한다. 오는 22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최근 창단한 '자타공인'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 발전을 위해 공연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를 대중에게 알리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함양한다는 목적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다채로운 전통연희 종목들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시원한 여름 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첫 무대는 서창마을(광주시 서구)의 '만드리'를 재구성한 '새만드리'로 꾸미며, 이어 다채로운 가락을 펼쳐내는 '삼도사물놀이', 남사당 꼭두각시 놀음이 익살스럽고 코믹하게 풀어낸 '박첨지 팔도 유람거리' 등을 선보인다. 이밖에 강령 사



자탈춤, 판소리, 사물판굿, 버나놀이, 소고놀이 등도 만날 수 있다.

공연은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선착순 50명 무료관람. 문의 062-350-4557. /전은재 기자 ej6621@

ACC '인공지능 그리고 아트&테크' 4차례 특강

21일, 서울대 이교구 교수 '인공지능과 창작'

예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를 진단하고 창조성을 엿볼 수 있는 특별 강연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최원일)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이 '인공지능 그리고 아트&테크'를 주제로 개최하는 특별강연이 그것. 오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ACC 라이브러리파크에서 총 4차례(대면 3회, 비대면 1회) 진행된다.

먼저 오는 21일에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이교구 교수가 '인공지능과 창작'을 주제로 인공지능이 다양한 창작의 영역에 활용되는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28일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남주환 교수가 '클래식 음악 연주를 위한 인공지능'을 주제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피아노 연주 속의 다양한 연주 요소를 악보로 옮겨 적는 기술 등을 설명한다.

현대예술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도 만날 수 있다. 8월 4일에는 매체 예술가(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 전유진 대표가 '예술과 인공지능 융합의 다양한 양상'이란 화두로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한 부분을 조명한다.

13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강의는 W3C Web Audio API 표준안 편집자인 최홍찬 강사가 웹과 컴퓨터 음악의 만남'을 주제로 W3C의 공식 추천 표준안이 된 Web Audio API 역사를 돌아본다. 강연 참가 희망자는 ACC 누리집에서 현장강연 30명까지 선착순 등록 가능하다. 문의 marte@dongguk.edu, 062-601-4559. /박성천 기자 skypark@

요문화중심도시 아이디어 공모 강동호 등 우수상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이 공모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강동호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홍보관 건립', 이지민의 '연령층에 맞는 콘텐츠 개발', 양은희의 '문화예술인과 현장소통의 날 운영' 등 3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에는 총 83건이 접수됐다. 수상작 외에도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방법 및 개선 방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제안과 관련해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 활용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은 모두 5명이 수상했다. 구체적으로 '문

화 시민을 위한 마일리지제, 홍보방법 다각화(손주환), '아시아문화전당 접근성 개선과 관광객 유치 전략(김현진)', '빛고을 광주, 빛의 도시 광주. 숲을 만나다(유상근)', '광주천의 휴게공간화(이예림)', '문화예술 지원 사업 장려(송민기)' 등이다. 우수상에는 상금 30만원, 장려상은 상금 20만원이 주어졌다.

심사를 맡았던 김기근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총괄지원연구관은 "올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작년보다 내용의 깊이가 더해져 실질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안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M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